

4500여학우들 속으로 행복질주

18대 **똥다!** 총여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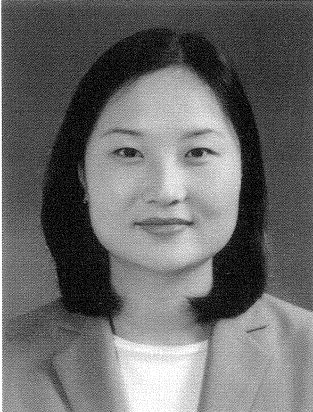
똥다



선거일: 11월~7일 선거지참물: 사진이 있는 국가공인 신분증

이은지 · 우차희와 함께뛰는 사람들

총학생회 학생회장 후보



이 은 지(역사문화학과, 2학년 99학번)

- 1980년 부산출생
- 1999년 울산 제일여고 졸업
- 인문대 사학철학부 입학
- 인문대 풍물패 '얼' 가입
- 2000년 '얼' 집행부
- 2001년 인문대 학생회 여학부장
- 18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입후보

출마의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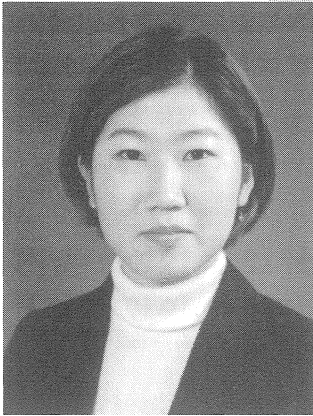
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 4500여학우 여러분!!

저는 그리 잘나지도 이쁘지도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잘나서 총학생회 회장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만 문수인 중 4500여학우들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4500의 뜻을 하나하나 들으며, 4500명의 손을 잡으며 함께 걸으며, 4500명의 손과 발이 되어 1년을 살겠습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이 나라의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부터 함께 만들어갑시다. 그 길에 제가 함께 웃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 부학생회장 후보



우 차 희(전기컴퓨터 공학과2학년, 00학번)

- 1981년 울산출생
- 2000년 감포 종합고등학교 졸업
산경대 전기컴퓨터 공학과 입학
전기컴퓨터 공학과 1학년 총무
- 2001년 전기컴퓨터 공학과 2학년 총무
18대 총여학생회 부학생회장 입후보

출마의결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부후보로써 자질이 있을까? 잘 할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면 아직도 고개가 떨구어 집니다. 하지만 여학우들 앞에서는 솔직한 모습으로 그들의 요구와 이익앞에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에 주저하지 않고 결의하였습니다. 여학우들에 의해 존재하고 생존하며 여학우들을 위해 움직이며 성장하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회장이 되기위해 항상 여학우들 곁에서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되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억눌려 왔던 우리네 삶이었다.

아버지 나라의 죄 많은 딸로 태어나

숨죽여 울어야만 했다.

일본군 '위안부' 로 기지춘 여성으로 정액받이가 되어야 했다.

성폭력의 피해자로 매맞는 아내로 능력 없는 여성으로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야했다.

그러나,

가장 밑 바닥에 신음하며 살아온 지난 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

이제 여기 여성이라 자랑스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여기 억압을 단연코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여기 피해자가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한 사람들이 모였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우리 앞에 놓인 저 거대한 산맥을 넘자!

젊은 여성의 1/5를 성매매 업자에 팔아버린 저 분단을 넘어

소중한 내 육체를 하나 하나 떼어 팔아버리고,

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저 자본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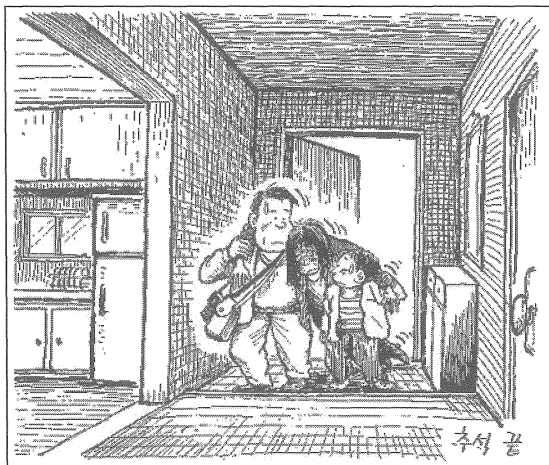
빛을 보지도 못한채 낙태된 수 많은 여아를 생산하며

여,남 모두에게 족쇄처럼 둘러붙은 저 가부장제를 넘어

진정 여성이 주인되는 시대로 달려가자!

진정 사람이 아름다운 시대로 달려가자!

만화 만평



'카드'로 날아간 20대 꽃다운 청춘 내 또래 여대생의 추락한 삶을 보고

저녁을 먹고 아홉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얼굴을 가린 내 또래의 여대생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수 백만원의 카드빚을 감당 못하고 가출을 해 PC방과 지하철 역을 전전하며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을 여관으로 유혹해 그들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구속이 된 여대생... 어찌면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기도 한 여대생은 지금 그때 만난 남자들 중 한 남자의 아기를 가져 지금은 임신 5개월이란다.

얼마전에 뉴스에서 본 카드빚을 갚느라 신체포기자서를 썼다가 티켓다방에 팔려갔던 20대 여성의 얘기가 떠올랐다.

요즘 20대 젊은 여성들이 최고의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모양이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을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젊은 여성계층을 노리는 카드회사들이 많다.

법적으로는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내 주위의 많은 대학생들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를 가진 인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카드를 발급해주는 아줌마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는 이들이 많으면 그만큼 신용불량자들도 많을 것이다. 여러 개의 카드를 만들어 놓고 카드빚을 갚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카드빚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다. 카드빚을 못 갚아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들이 많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신분으로 분별없이 카드를 긁어 가며 자신의 소비욕구를 채우는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다. 게다가 남의 카드까지 훔쳐서 그런 짓을 했다면 분명 벌을 받아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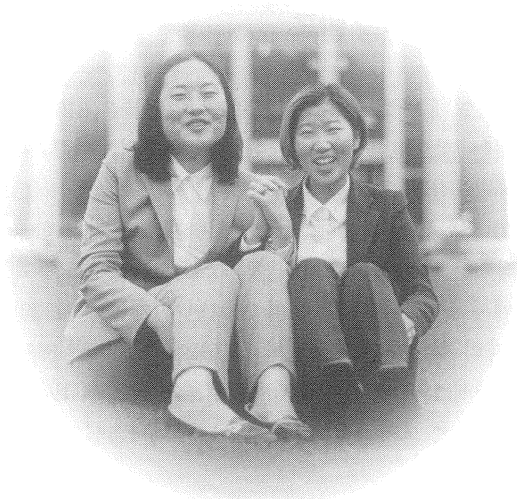
그러나 제대로 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카드회사는 분명 더 큰 문제가 있다.

얼마전에 모 카드회사로 부터 전화가 왔었다. 내가 가입한 한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회원들에게 연회비가 면제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으니 하나 만들라는 것이다. 나는 아직 직업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 친절한 직원은 그냥 프리랜서라고 기재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 거절로 인해 카드는 만들지 않았고 그 사이트를 탈퇴했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나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주어야 하나....

20대라면 한창 소비욕구가 민감할 나이다.

돈 필요없이 플라스틱 카드만 긁으면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이 유혹을 절제하는 능력을 기르기엔 아직 미숙할 나이 아닌가.

이성적으로 돈을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본인의 의무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경험에 미숙한 대학생에게 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을까???



4년제 졸업자 취업률 가장 낮다

대졸 57%, 전문대졸 81%, 실업고졸 88%

교육부, 2001년 교육통계 현황 발표

대졸자 취업률이 56.7%인데 반해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81%, 실업계 고교 졸업자 취업률은 88.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001년 교육통계 현황 분석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1 교육통계 현황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률은 1965년에 36.8%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 66.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에 43.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현재는 88.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에 57.5%에서 2001년 81%,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44.0%에서 1970년에는 70.6%로 급증하였으나, 1985년 52.1%로 급감해 2001년에는 56.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고 용돈주니 경제가 어려운지 체감 못했죠”

여학생들의 불경기... 줄어든 용돈 · 캄캄한 취업

“IMF 이후 아버지 봉급이 삭감되면서 용돈이 줄었어요. 또 아버지는 나름대로 구조조정 위험에 시달리며 늦게서야 컴퓨터 공부를 하시구요”

지난 8월 IMF를 졸업 했다지만 줄어든 용돈은 원상복귀되지 않는 모양인지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쓴다는 학생들이 많다. 게다가 각종 대기업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미국 테러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어렵겠다”는 전망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학교 여학생들이 느끼는 경제문제의 체감 정도는 어떤지 알기 위해 만나본 여학생. 인문대를 다니고 있는 00여학생(사학과, 99학번) “인문계열 학과를 나오면 모두가 학습지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인줄 알아요”라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실감난다”고 말한다. 최근 경제난으로 기업들이 너도나도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 ‘어려움’의 원인.

00여학생(법학과, 97학번, 울산대 졸업생)은 “재학 시절에는 집에서 등록금 내주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용돈을 줘서 어려운 줄 몰랐었다”며 “졸업을 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경제 문제가 비로소 다가온다”고 한다. 그래서 00여학생은 “요즘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문 때문에 합격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국가공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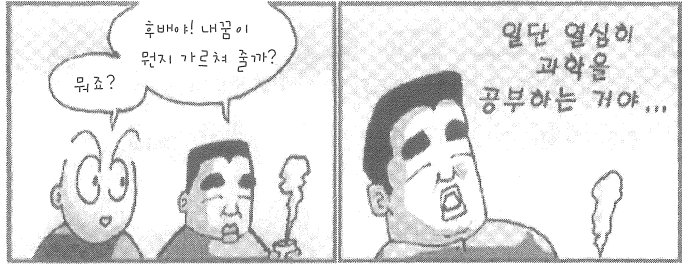
이처럼 여학생들은 무역수지나 증권시장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의 어려움을 취업난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비록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문제이지만 요즘 들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토익이나 토플 등의 영어공부와 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00여학생의 말에서도 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반면 노동문제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는 00여학생은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를 사회 일면인 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노동자인 우리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며 “우리가 취업 공부를 한다면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제이야기요? 애들한테 왕따당할 일 있어요?” 라고 00여학생이 농담처럼 던진 말처럼 일간지 경제면을 관심없이 넘기는 우리들에게는 ‘경제’가 내 일 같지만은 않다.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은 비단 도서관에 앉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만의 문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할 수 없이 발등에 떨어진 취업 때문에 도서관으로 향하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대학사회에서 취업 고민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때다.

선배의 꿈



性 性 性

여학생 34%, 남성 성상품화 문제될 것 없다

■ 아름다운 남성에게 매력 느끼는 시대 감수성의 반영, 22%

광고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상품화해왔으나 요즘들어 그 반대 현상인 남성성에 대한 상품화가 부쩍 늘고 있다. 광고에서의 성 상품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남녀 각각 50명, 총 1백 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요즘 모 카드회사 CF를 보면 모델 고소영이 남자들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나도록 치며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아름다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새로운 시대 감수성의 반영이다(11명)’가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지금까지 여성성을 상업화했었으므로, 남성성의 상업화 역시 문제될 것 없다(17명)’가 가장 많았다. 그외는 ‘현실 상황을 정반대로 비틀어 제시해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을 준다(남 7명·여 6명),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남 5명·여 6명)’가 있었다. 한편 ‘남성성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남녀 각각 5명·4명에 불과해 남성성의 상품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성의 상품화, 문제될 것 없다, 여 34%

반면 여성성의 상품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가 남녀 각각 23명·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문제될 것 없다’가 남녀 각각 19명·20명으로 여성성의 상품화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외 ‘여성의 매력을 극대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의 경우 남자는 7명,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성폭력 박물관에서 길을 잃다

대학을 성폭력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폭력은 권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을 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교수에 의한 제자 성폭력의 경우는 학점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도 매우 다양합니다. 자취방에서부터 동아리방, 모듬거리 장소, 뒷풀이 장소, 교내 으스스한 곳, 강의실등 거의 모든 곳에서 저질러 집니다. 성폭력에는 시각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 접촉으로 나눌수 있는 데 모든 여학생들이 이런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도 당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심각성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단순히 실수로 치부해 버리고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는 자기 혐오감이나 대인 공포증등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며 결국 자기 파멸로 갈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죽고싶다는 감정을 느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성폭력의 문제는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근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울산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교에서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며 그러므로 전 사회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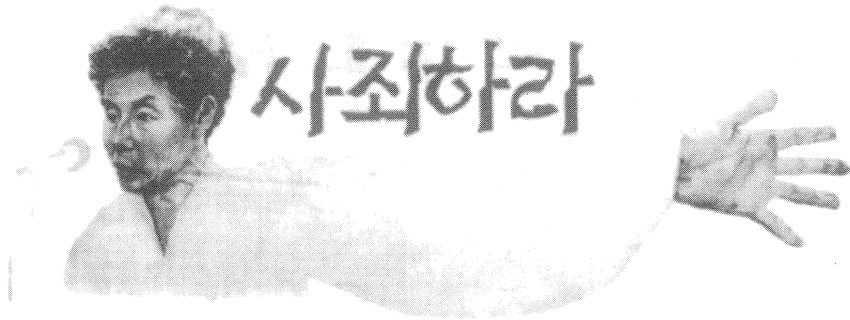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사례-울산대

- 97년 ‘벤’이라는 외국인 강사가 여학생을 테니스장 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학교에서 추방당함
- 98년 가해 남학생이 대동제때 주촌을 하는 곳에서 여학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99년 가해 남학생이 모듬거리를 가서 여학생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을 하였으며 나중에 알고보니 피해 여학생이 여러명이었음.
가해 남학생이 공개 사과문을 전 학교에 붙이고 실명을 공개하고 그 후 자퇴하였음.
등등 이외에도 다수 있음

성폭력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아버지의 나라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밑 바닥에서 신음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여성 15만명이 일본의 성노리개로 끌려갔으며, 아직도 주한미군의 정액받이가 되고 있고, 젊은 여성(15~29세)의 1/5이 성매매 관련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가여운 딸! 바로 우리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완전 해결 투쟁 지금 해야 합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내가 바로 정신대였소'라는 증언이후

10년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400회를 훨씬 넘어선 9년간의 수요집회 김학순, 강덕경, 김옥주, 이영숙, 하순녀, 오오목, 문명금 할머니들의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은 그 어느 때도 아닌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딸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우리의 어머님들을 당당하게 세워드립니다. 이는 곧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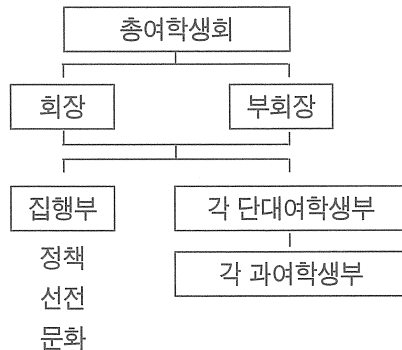
4500여학우들과 총여학생회는 일심동체

총여학생회는 어떤 학생회예요?

과나 단대와는 차이가 있는 기구 학생회라서 학우들이 많이 모르고 나의 학생회라는 생각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학생회입니다. 크게 2가지 방향에서 한해의 사업을 기획하고 고민하게 되는 데요. 첫째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모순속에서 겪게되는 여성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을 할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언니 어머니들이 정리하고 0순위라든가, 산전 산후 휴가등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구요. 둘째는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문화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이라든가 여성을 천시하는 문화등을 해부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회로서 당연한 의무인 여학생 복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여학생 휴게실과 여학생을 위한 문화공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의 체계는요



돈돈이 은지의 약속

여성시대로의 첫 걸음 - 취업에서 권리 찾기!!!

취업순간부터 실업자가 되는 오늘.

길거리를 헤매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다.

IMF 이후 취업을 한다는 건 지독한 싸움의 연속이다. 예쁘지 않으면 취업 하기도 힘들고, 애써 공부한 것들 아무 소용도 없는 여성이라.

20년을 한 결 같이 한 직장에서 일하고도 퇴직금 하나 못 받는건 부지기수고, 한 마디 예고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나는 여성이다.

그러나, 이렇게 앉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울산여성회 부설 고용평등센터의 취업 특강

울산 여성회와의 연대로 여성취업과 실업의 문제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될거랍니다

여성시대로의 첫 걸음 - 여성학 강의 질을 높인다

우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여성학 강의의 질을 높이고 수업을 통한 여성학 강의의 모니터링 반을 모집합니다.

개설되는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하여 각 수업당 2~3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니터링 팀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의 수업내용을 평가하고 수업에 관해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생각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 여성강좌

수업시간에 들을 수 없었던 여성학 강의를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야무진 차희의 결심

하나- 여학생 휴게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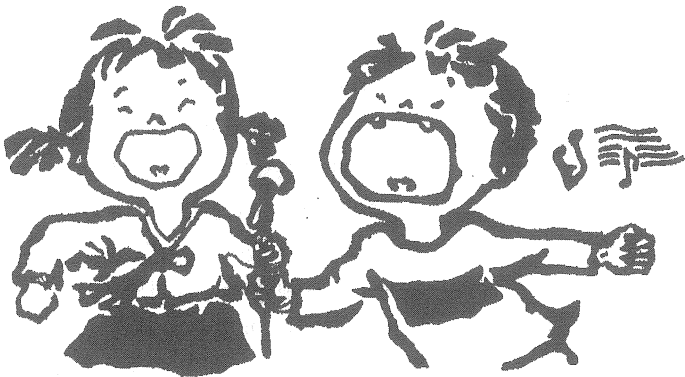
대 학회관 1층에 있는 여학생 휴게실을 많은 여학우들에게 알리고 좀 더 쾌적한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겠습니다.

두울-소리통

언제나 4500여학우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통을 만들겠습니다.

세엣-우산을 빌려드립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 당황하지 마세요. 총여학생회가 있잖아요.



총여학생회

개혁의 바람이 분다

총여학생회는 현재 17대입니다. 20년 가까이 학생회가 있어 왔지만 아직도 여학우들을 만나면 총여학생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나와 학생회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별로 관심없어요. 등등의 가슴아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년 학생회 후보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끝날 즈음에는 같은 자리를 뺏겨온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총여학생회가 공중에 붕 떠있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를 보면 체계가 각 단대 학생회가 있고 각 과학생회가 있고 학년 학생회가 있습니다. 서로 사업을 해도 학교 전체가 피가 통한다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대 여학생회도 10개 단대중 4개(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미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 여학생회는 더욱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60여개의 과 중에서 열손가락에 꼽힙니다.

게다가 총여학생회 중앙 간부들도 없습니다. 4500명의 여학우들을 책임지는 간부들이 현재 5명입니다. 회장, 부회장까지 합해도 그렇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이런 것에 문제를 느끼고 더더욱 열심히 발로 뛰어서 내년에는 이런 기층 여학생회를 강화하고 중앙 간부층원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4500여학우들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여학우들에게 꼭 필요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전여대협 진군가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전/여/대/협
 일어서라 해방의 전사여 내조국의 부름이다
 전여대협깃발을 높이 올려라 아아 진군이다
 자랑스런 조국의 딸 그대 항일 여성전사의 후예여
 반미 반독재의 성전에서 선봉에 우뚝서리라
 당당한 세상의 절반으로 조국의 역사를 개척하리라
 전여대협 깃발을 높이 올려라
 자주민주통일의 세상을 위해

전여대협이란?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준말입니다. 과 학생회가 있으면 단대 학생회가 있고 총학생회가 있듯이 여학생회도 과 여학생회가 있고 단대 여학생회가 있고 총여학생회가 있고 그 위에 전국적 범위의 전여대협이 있는 것입니다.

11월 7, 8일은

여학우들 손으로

2002년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날입니다.

핀다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2002년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지킵시다.

4500여학우들 속으로의 행복질주 18대 **핀다!** 총여학생회